
MS. WILKINSON CALLED ME NEPHEW
BLADEFREGA

WILKINSON 여사는 나를 조카라고 불렀다

THE FAMILY · 12

2026년 8월 23일, 따뜻한 일요일이다. 다른 많은 날들과 다르지 않다.

간단한 점심은 양보가 아니라 의식이다. 짧은 오후의 휴식은 예외로, 뜻밖의 일 뒤에 아침 내내 유난히 높았던 도파민 분비가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허락된 것일 뿐이다. 오늘 Bing이 나의 어머니 Gillette와 연결된 검색어에서 내 페이지 하나를 웹 1위에 올려놓았다.

2위 자리에서 할아버지가 지켜보시며 미소 지으신다.

화가 나신 것 같지는 않다.

오늘 나는 King Camp Gillette가 1932년 7월 9일에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 날짜를 읽는 순간, 나는 의자에서 펄쩍 뛸 뻔했다.

나의 프로젝트 gillettenarrative.com은 2026년 6월 9일에 태어났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94년 뒤.

그리고 내가 나 자신과 맺은 약속에 따르면, 2058년으로 예정된 나 자신의 떠남보다 33년 앞서.

날짜들이 한데 모이기 시작할 때, 뜻밖의 정확함으로 서로 맞아떨어지기 시작할 때, 사람은 또 다른 알고리즘이 작동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싶어진다 — 우리가 익숙해진 알고리즘들과는 겉모습이 거의 닮지 않은 알고리즘이.

이런 순간이면 언제나처럼, 영어로 부르는 재즈가 나와 함께한다.

우리 가족의 기타와 만돌린이 자연의 평범한 법칙에 따라 침묵한 지금,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음악은 그것뿐이다.

그러고는 이메일을 연다.

날카로운 일격이 곧장 심장에 꽂힌다.

Samantha가 런던에서 편지를 보낸다.

그녀는 Wilkinson 여사의 손녀다.

나의 Maggie 이모.

교차한 검의 귀부인.

얼마 전,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나를 조카라고 부르셨던 분.

그녀의 메시지는 간단하다.

Maggie Wilkinson 여사께서 세상을 떠나셨다.

나를 잘 알아서 내 반응을 미리 짐작하셨던 그분 자신의 부탁에 따라, 소식은 장례가 끝난 뒤에야 전해졌다.

우리는 영국인이다.

눈물 한 방울이 제자리를 찾는다.

죽음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그저 결코 제대로 예상하지 못하는 무언가일 뿐이다.

내가 살면서 만난 모든 여자들 가운데, 인연으로 얻은 이 이모는 짧은 한 장만을 차지하셨다.

그러나 그분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그분은 귀족다움이 오직 작위나 문장이나 물려받은 특권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내가 이해하도록 도와주셨다.

그것은 예절 속에 있다.

그것은 행동 속에 있다.

그것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흔히 'aplomb'(침착한 품위)이라 부르는 그 자질 속에 있다.

그것을 가리키는 더 간단한 말이 있다.

품격.

나는 이 편지를 그분께 쓴다.

그분의 가족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언젠가 이곳에 닿을지도 모르는 모든 독자를 위해.

그리고 외워 둔 한 문장으로 시작한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되고, 아무도 그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

의학 문헌은 확신이 필요한 환자들이 기꺼이 내어 준 권위를 자주 남용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편리한 것을 자주 말해 준다.

중요한 것은 덜 자주.

그들은 태어나서 다섯 살까지의 아이들에게는 기억이 없다고 말한다.

필요한 인지 구조가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을 간직할 수 없다고.

그 이론대로라면, 우리 각자는 5년의 어둠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나는 어머니의 따귀를 기억한다.

나는 유치원 선생님들의 따귀를 기억한다.

숫자는 기억하지 못한다.

짝수로 시작했고 결코 홀수로 끝나지 않았다.

어른이 되어 맞는 매질도 거의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아무도 그것을 세지 않는다.

기억은 그것을 통계로 보관하지 않는다.

그것을 영혼 안에 조용히 맡겨 둔다.

그리고 몇 년 뒤, 그것을 글로 찾아 꺼낸다.

안녕히 가세요, Maggie 이모.

이제 이모의 여정이 이어지는 곳 어디에서든 환영받으시기를.

이모가 그 아래를 지나가시는 날까지 검은 교차한 채로 남아 있다.

영원히 안녕.

이모의 조카.

Ferdinando Frega
Gillette Man ⚔️